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정종해 보성군수

예산 1천억원 '친환경' 집중 투자

정종해 보성군수는 "지난해 내실 있는 경영으로 농림어업과 교육·경제·문화 등 군정 전반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올해 보성군정의 최우선 과제는 생명산업인 농·어업을 살리고 지역 농어업인들이 잘살도록 지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우선 올해 1천억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농림어업 예산을 투입해 친환경 농업을 집중적으로

맞춤형 농정 확대

육성하고 ▲농수산업의 선진화 ▲벼 육묘용 모판 흙 및 우량 종자대 지원, 관리기 공급 ▲농림어업 생산기반 확충 등 맞춤형 농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개방화 시대에 맞서 경쟁할 수 있는 특화작목을 개발하고 녹차미인 보성 쌀과 보성삼베, 벌교 꼬막 등 지역 농·특산품의 브랜드 파워를 높여 '돈 버는 농업, 살맛나는 녹색농촌'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보성녹차 명품화와 다양한 연관산업 육성으로 국내외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한국 차박물관' 개관, '세계 차나무 식물원' 조성 등 녹차 수도로서의 위상을 다지기로 했다.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 청사 본관 리모델링과 별관 신축 공사를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정 군수는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보성교육의 경쟁력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를 위해 장학재단 운영을 내실화하고 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특화사업 추진, 방과후 학교 및 영어체험교실 지원 등 지역 교육기반을 강화해 자녀 교육 때문에 고

'한국 차 박물관' 개관

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사회간접자본과 문화복지시설의 열악한 현실 개선을 위해 관내를 보성권 · 벌교권 · 주암호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특성을 살린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와 보성~광주간 국도확장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기반사업도 충실히 추진하고 벌교산업단지 개발과 조성지구 농공단지 조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에도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녹차축제 등 지역축제를 더욱 차별화하고 판소리 테마파크 등을 통해 보성을 세계인이 찾는 '판소리의 성지'로 가꿔 연간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도 열기로 했다.

벌교와 주암호 주변 생활체육 공원조성과 야구장, 국민에코 스

판소리 등 축제 차별화

포츠시설 조성 등으로 체육 인프라를 갖추고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또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생산적 복지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 밖에도 노인복지센터와 노인요양시설 확충, 노인 일자리 확대, 경로당 활성화 등 노인복지 증진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장애인, 여성, 아동, 다문화 가정이 소외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계획이다.

정 군수는 "장기적인 청사진을 갖고 새로운 보성시대를 열어나가는 새해가 될 것"이라며 "새해에도 '풍요로운 녹색의 땅 희망찬 보성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광양 '농가소득 5만불 시대' 연다

市, 524억원 투입…10대 추진과제 설정 '돈 되는 농촌만들기'

도·농복합도시인 광양시가 올해부터 농가소득 5만달러 (5천620여만원)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

광양시는 FTA 등 개방화의 파고에 대처키 위해 농업발전 6대 전략수립에 이어 최근 10대 추진과제를 설정,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시는 매년 200억원 이상을 농업분야에 투입해 왔고, 올해는 전체 예산 4천억여 원 중 13.1%인 524억원을 농업 보조예산으로 확정해 투입할 방침이다.

시는 농업을 생명산업으로 인식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린 농업발전 인프라 구축 ▲친환경농업 육성 ▲다각적인 특품화 농업 ▲수출농업 ▲관광농업 ▲유비쿼터스 농업 등 농업발전 6대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광양시 농가소득은 3천600여만원(3만2천여 달러)에 달해 전남 평균 2천800여 만원이나 전국평균 3천200여 만원을 웃도는 높은 수준이다. 광양 농업인들은 매실을 비롯해 애호박, 고로쇠, 고사리, 파프리카 등 작목에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시는 지난해 72명의 '억대 부농'에 이어 올해에는 100여 농가를 억대 부농으로 키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사계절 꽃이 피는 그린시티 조성으로 시 이미지제고 ▲친환경 인증면적 지속확대로 소비자 신뢰확보 ▲도시농업으로 녹색공간 조성과 광양농업 알리기 확산 ▲수출·고소득작목 발굴로 농업경쟁력 제고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로 관광농업 지속 추진 등 10대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품종개량, 토양개량, 재배기술혁신, 유통혁신, 인재혁신 등 5대 방침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엘리트 농업인을 지속 육성하고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건물 옥상에 팜가든 만들기, 향토음식 전문점을 육성해 도·농복합도시로서 새로운 면모를 창출할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농업분야에서 사료 및 비료값 상승, FTA, 고유가 등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 환경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푸른농촌 희망찾기와 돈버는 기술농업 보급으로 살기 좋은 복지농촌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 농업인은 전체인구 15만명중 1만6천500여명으로 11%를 차지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고흥 '산업형 특화단지' 내달 착공

郡 410억원 투입…300여명 고용 창출효과

고흥군은 고흥읍 호동리와 두원면 학곡리 일원 4만9천㎡에 사업비 410억원을 들여 '고흥 산업형 특화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특화단지에는 전남테크노파크 고분자 융복합 소재 센터와 함께 풍력 블레이드와 요트, 자전거, 우주항공 부품 등 신소재 제품 생산을 위한 ㈜도하인더스트리, 유한회사 다산엔지니어링 등이 들어선다.

다음달 착공해 올 연말 완공할 예정이며 300여 명의 신규 고용창출도 기대된다.

군은 앞으로 산업형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신재생, 자동차 경량화 소재 관련 기업 등이 입주하는 '고흥 미래산업단지'를 2011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 및 신재생산업, 요트산업 등에 대한 입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설 수송 안전 관리'

여수해경 여객선 점검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한국해운조합은 합동으로 설연휴 섬 귀성객들의 안전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주간 여객선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 대상은 전남 동부지역 섬을 오가는 여객선 23척과 도선 24척, 선착장 시설물 30여 곳 등이다.

중점점검 부분은 선체와 항해 기관, 통신장비 작동상태, 구명동의 등 인명구조장비 비치 및 관리상태, 소화장비 비치 및 관리 운용 실태, 사업자와 선원, 종사자 교육실태 등이다.

또 선장과 승무원을 대상으로 안전운항 요령과 사고 발생 때 신고 및 긴급 조치요령 등 안전교육도 한다.

한편 지난해 설 연휴 전남 동부지역의 여객선 등을 이용한 귀성객은 4만4천여 명에 달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 새얼굴

"척추·재활전문센터 특화 추진"

김 용 주 산재의료원 순천병원장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병원, 신뢰받는 병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김용주(55) 한국산재의료원 순천병원장은 "대학병원과의 전략적 제휴, 우수의료진 확보, 척추·재활전문센터의 성공적인 특화를 위해 공격적인 경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 출신인 김 원장은 지난 1980년 전남대 의대를 졸업했으며 순천병원 및 창원병원 정형외과 과장, 순천의료원장, 순천시의사회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이미정씨와 사이에 1남3녀를 두고 있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ija@

光州日報 전남동부취재본부

(061-908-8111)

여수 순천 광양 고흥 곡성 구례 보성

본 부 장	김동호
	김계중 국장
	주각중 부국장
	박양규 부장
	이진택 부장
	박영진 차장
	김은종 기자
	선상근 기자
	김청수 기자
	박성태 기자
	하태민 기자

여수세관, 웅천지구 신청사로 이전

오늘부터 업무 개시

여수세관(세관장 이돈경)이 여수시 웅천동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단지내로 이전해 18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여수세관은 지난 2007년 11월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확정에 따라 100여년 역사의 오동도앞 수정동 시대를 뒤로하고 지난 2008년부터 청사 신축·이전을 추진했다.

여수세관은 총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6월 착공, 6개월만인 지난해 12월 신청사를 완공했다.

신청사는 대지 1만6천500㎡, 연면적 2천85㎡ 규모의 지상 3층 본관동, 별관동, 창고동으로 건축됐다.

여수세관은 1911년 목포세관 여수감시서로 출발해 1949년 7월 여수항 개항과 함께 세관으로 승격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세수는 관세청 전체 세수의 8%를 점유하는 등 관세청의 주요 세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